

지역 소식통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자원조사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죽산면 48개 마을과 광활면 20개 마을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마을자원조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원조사는 마을종합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마을의 환경, 문화 등의 자원 발굴 및 실태 파악, 마을 구성원들의 다양성, 인구자질, 주제성, 공동체성 등을 세분화하여 조사 수집한다.

마을 자원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생생마을 만들기, 마을역량강화사업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과 농촌현장포럼 등의 마을사업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19년도에는 만경읍 38개 마을의 자원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구축된 자료로 2020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기초단계)에 만경읍의 남리와 소동마을이 선정되어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바이러스19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농업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인의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관내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73종 766대 전 기종에 적용할 예정이다. 4월부터 7월 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직자 여러분, 힘내세요”

20년째 야쿠르트 배달해 온 최복현씨의 야쿠르트 기증 등 완주군 재난대책본부·보건소에 각계각층의 위문품 쇄도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공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야쿠르트 수백 개를 기증한 작은 정성이 큰 울림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완주군청에서 20년째 야쿠르트 배달해 온 최복현 씨(58.전주시 우아동)이다. 한국야쿠르트 프레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그는 최근 자비를 들여 떠먹는 야쿠르트 '슈퍼백' 300개를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완주군 보건소에 전달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군청 전 부서를 도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아주 소박한 정성을 전달하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최 씨의 작은 기부는 올해로 24년째 계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주부에서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 야쿠르트 아줌마로 근무하기 시작한 그는 매년 4월 식목의 날 행사 때가 되면

20만~30만원 상당의 야쿠르트를 군청 직원들에게 기증해 왔다.

또한 그녀는 3년 전부터 완주군 소양면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매일 야쿠르트 50개씩을 사비로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명의 학생들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남달래 선행을 베풀어 왔다.

1남 2녀를 둔 최 씨의 꿈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최 씨의 작은 정성 외에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완주군보건소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위로 격려하려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위문품이 쇄도하고 있다.

전북은행 완주군지점과 농협 완주군청지점, 완주4대매와 예비군여성소대, 사회적기업 '다정다감', 완주군 의용소방대, 용진농협, 완주군 지역자활센터,



완주군청에 유제품을 배달하는 최복현씨가 야쿠르트 300개를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사)완주군장애인연합회, 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연탄은행,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떡과 음료수, 빵과 치킨, 피자, 샌드위치 등을 제공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등 훈훈한 정을 보여줬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시민에게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0여개 부서의 페이스북 관리자 대상 교육을 마쳤다.

김제시, SNS 통한 실시간 소통

부서별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운영... 4월부터 본격 가동 계획

김제시는 시민에게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나 태풍,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여 개 부서의 페이스북 관리자를 대상으로 최근 도입 취지 설명과 운영요령 전달 등을 위한 교육을 마쳤다.

부서별 페이스북이 운영되면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얻을 수 있고 해당 부서에 실시간 의견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의견은 업무 추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부서 페이스북 관리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댓글 대응 등 즉각적인 민원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시책 등을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역할도 담당한다. 이번에는 SNS 채널 중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향후 사용자 반응을 보고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며 "누군가에게는 SNS가 유일한 소통창구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시민들의 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창구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부서장들은 시민들이 편하고 쉬운 소통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행안부 주관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공모 선정

논·밭 시설물에 새 주소 부여 농산물 산지 유통 시 불편 해소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시범사업'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대 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김제시를 포함한 13개 시군구가 선정되었고, 이번에 선정된 김제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문제점 정비 및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확산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는 도로명이 부여된 곳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건물이나 사물이 들어서는 어디든지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물이 없는 도로(농로 등)에 도로구간 신설, 기존 도로구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에서 100m 경계 구역을 설정하여 도로 골짜기 등에 해당하는 격자를 추출하여 도로변 공지에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국

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내년에 광활면 감자 재배단지, 백구부용리 일원 포도 재배단지에 시범적으로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관을 설치하여 유통업체·택배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사물주소관 설치를 희망하는 김제시 전지역 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 시 도로명주소가 없어 겪었던 농가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테니스장, 산림해충 퇴치기 26대 설치

완주군이 테니스장에 산림해충 퇴치기를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완주군은 완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체육관계자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최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산림해충 퇴치기 26대를 설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산림해충 퇴치기는 특수 자외선램프로 모기, 날파리 등

의 유해해충을 유인해 팬 바람으로 흡입, 분쇄한 뒤 배출시키는 기구로 악취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 현재 산림해충 퇴치기는 체육공원, 고산자연휴양림, 완주 테니스장 등에 90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용객들의 야간 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김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홈페이지 홍보 및 관내 법인회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9년 12월 결산 법인은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예는 자치단체별로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으로는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단된 위기에 처해 법인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5월 4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